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월 18일 (제77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에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조건적 약속

어릴 때 나는 아들들에게 “1등하면 네 반 아이들 전체에게 아빠가 맛있는 것을 사 줄게.”라고 말한 적이 있다. 1등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은 파티였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아들이 정말 1등을 해왔다. 나는 너무 기뻐서 약속대로 반 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주었다.

성경은 모두 조건적 약속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6:3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이행된다. 왜 하나님은 조건적 약속을 하십니까? 까다로우신 분이어서? No. 이는 하나님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들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 남을 용서해야 내가 편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니까, 그리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하니까. 아들이 공부 잘해야 하기에 내가 조건적 약속을 한 것과 같다.

나는 30년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첫 사랑을 가지고 30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니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며, 주님 재림 때 모두 들림 받게 해주세요. 또한 이 나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조건적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내가 열심히 할 경우에 축복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뛰었다. 뛰어야 한다. 2045년까지. 여러분도 나와 함께 뛰자.

청주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에 다녀와서

지난 12일 청주예수중심교회가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이전예배를 드렸다. 배 형상을 하고 있는 교회 건물의 모습이 독특하고 인상적이었다.

총회장 목사님의 교회 이전 축하메시지다.

“나는 교회를 식당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식당은 육의 음식을 팔지만, 교회는 영의 음식을 팔지요. 식당은 간판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합니다. 대박이 난 음식점의 주방장은 ‘어떻게 하면 맛이 날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만

인 사도행전 6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예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행6:2)고 했습니다. 공예나 구제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서 맡기라는 것입니다(행6:3). 역할분담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보십시오. 그들은 피라미드 전법을 씁니다. 피라미드 전법은 모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도 이 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목사를 주축으로 피라미드 틀을 갖춰야 교회가 안정됩니다. 나는 잔뿌리론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곧은

눈과 귀는 귀하고 발은 천하다는 인식을 버리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일을 맡기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히면 교회라는 나무는 거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질서까지 깨면 안 됩니다. 각자의 일은 하되 서로 융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규율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할 수 있게 목사가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음식 맛 못지않게 환경도, 서비스도 좋아야 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서비스



청주예수중심교회 이전예배 (2015.1.12)

들까’ 매일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하물며 영의 음식을 담당한 목사가 어떠해야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맛있는 영의 음식을 만드는 법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행6:4).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해야 맛있는 영의 요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들이 바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본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참견하고, 여기저기 간섭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객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객은 절대 음식 맛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늘 말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 활용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지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잔뿌리입니다. 교회에서 곧은 나무는 목사고, 잔뿌리는 조장이요 구역장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담임목사는 잔뿌리가 많이 뻗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일꾼들이 대거 물려와 교회의 틀을 잡아줬습니다. 목사는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꾼은 교회와 목사의 눈, 귀, 손 등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전 12:11~12).

가 엉망이거나 환경이 더러우면 고객들은 등을 돌립니다. 목사라고 어른들께 반말하지 말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는 자세일 때 성도들이 물려듭니다. 교회의 향상과 부흥을 위해 항상 점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깊은 물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처럼 일오삼 목사가 오늘 말씀을 실행한다면 청주의 많은 영혼을 건지리라 믿습니다.”

이전예배에 참석한 많은 지교회 교역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다. 다시 시작하는 30년, 교단의 첫 이전예배는 예수중심교단의 부흥을 약속하는 신호탄이었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2015년 이초석 목사 코스타리카 집회 1. 19(월) ~ 31(토) 산호세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7:1~8)



자살은 절대 도피처가 아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매일 평균 39명씩 자살한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하긴 이유는 다양하지만 누군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자살 사이트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버젓이 뜨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고, 자살을 결심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경우든 자살은 안 됩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해본다고 합니다. 인생이 녹록치 않다는 말이겠지요. 하긴 자살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선전들조차도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위로가 될까요? 하늘 문을 연 불세출(不世出)의 엘리야도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했고(왕상19:3~4),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모세도 그랬습니다(민11:15). 그리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고후1:8~9).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길이 없으니까 죽어버릴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죽으면 이 세상에 자살 안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사람보다 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살다보면 살 방법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두 편의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사는 '임길미'라는 여인에 관한 것이었죠. 그녀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바

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팔도 없을뿐더러 다리 한 쪽마저 성치 않게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사람노릇을 하는 데까지는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걷는 데 4년, 혼자 옷을 입는 데까지 12년. 그러나 그녀는 스웨덴 명문 음대를 졸업했고, 국제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4개나 땀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화장도 하고, 운전도 하고, 뜨개질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다 목

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총회장 이초석 목사

주셨습니다. 저는 두 팔은 없지만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멀쩡한 신체

를 가지고 꿈을 향해 달릴 줄 모르는 자가 장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 당신의 형편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신은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낙담하고 좌절합니까? 왜 생명을 포기하려 합니까? 사지가 없는 자도 꿈을 향해 달려 이루어내는데,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돌부리에 한 번 넘어졌다고 주저앉고, 더는 삶 자체를 포기합니까? 저들이 거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희망도, 믿음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버리고, 희망도 믿음도 하나님도 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못 들어갈까 봐 미리

죽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대학이 인생이 전부입니까? 대학 안 나오면 사람구실 못합니까? 아닙니다.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한 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자는 자기의 결백을 입증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려면 살아 있어야죠.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성추행범으로 몰렸지만 꿈을 놓지 않고 달렸더니 하나님

이 신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자는 연애에 실패했다고, 이혼당했다고 자살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내 생명보다 중합니까? 세상에 남자가, 여자가 그 사람

밖에 없습니까? 루트를 보십시오. 꿈을 버리지 않은 그녀가 누린 더 아름다운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살은 절대 도피처가 아닙니다. 죽어서 모든 게 끝난다면 도피처가 되겠지만,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존체로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자살은 스스로를 살인하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회개할 틈 없이 죽기 때문에 100% 지옥으로 갑니다. 성경말씀을 보십시오.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계22:15),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 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21:8). 세리인 마태를 제치고 회계를 담당할 정도로 똑똑한 인물이었던 가롯 유다는 은

삼십에 스승을 팔아먹고는 가책을 느껴 자살했습니다(마27:5). 밋세바의 조부인 아히도벨, 그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여 밋세바를 취한 다윗을 없애려고 했으나 후세의 반대로 그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하면 압살롬의 반란은 100%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살해 버립니다(삼하17:23). 사울 역시 블레셋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이 부르는 날까지 지켜야 한다

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당할 모욕이 두려워 자살했습니다(삼상31:4). 과연 이들이 제대로 도피했을까요? 죽어서 명예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No. 그들은 분명히 시쳇말로 여우 피하다 꿈을 만난 격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지글 지글 끓는 불못이었습니다.

자살케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도 더 지옥의 자녀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귀신을 투입하여 자기가 죽은 모습 그대로 자살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갔을 때 한 때 잘 나가던 연예인을 만났는데, 그가 자살하고 싶다 하길래 귀신을 쫓았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 "내가 자살시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절대 피난처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 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 라도 살라"(겔16:6)고 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합니까? 사업에 부도나서 대책이 없습니까?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줄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명예보다, 학벌이나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지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불못에 던지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말처럼 이 모든 것 또한 곧 지나갑니다. 기도하며 생명을 부어잡고 살아갑시다. 분명 옛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다 생각을 바꾸면 소망이 생긴다

다에 던져버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차마 버릴 수 없어서 얼룩강아지 하나 키운다는 심정으로 키웠답니다. 그러니 무슨 보살핌을 받았고,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자살할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발로 모든 생활을 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두 팔은 없지만, 그에게 있는 두 발로 인생을 역적스럽게 개척했습니다. 두 손을 가진 자보다 두 발로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서 아이 셋이나 낳았고, 남편과 아이들의 식사는 물론 육아까지 다 감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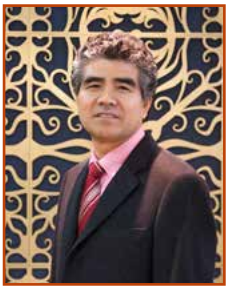
다른 영상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는 천상의 목소리, '레나 마리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정상적인 육체를 갖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목사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20여 년 전, 한 비디오테이프를 보고나서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올림피아공원을 찾았다. 목사님을 본 순간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너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섰던 말씀들은 40년을 살아온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사기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후 좌절하고 있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오셨다.

하나님께 물질들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나 드릴 것이 없어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예배는 빠지지 말자고 나 자신과 약속하였다. 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였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돈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모든 것의 부족은 기도의 부족이다'는 말씀을 하실 땐 기도하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하실 땐 금식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땅끝예수전도단 건물에서 100일 작정기도를 선포하셨다. 100일이 끝나자 목사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축복하라고 하셨다. 차를 갖고 싶은 사람은 차에,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은 집에. 돈도 하나도 없던 나는 서교동 토지에 축복하며 기도하였더니 50억짜리 서교동빌라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 행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목사님의 지근거리에서 지낸지도 벌써 7년째다. 가까이서 뵈는 목사님은 단에서 보았을 때보다도 더 인자하시고, 거짓 없으시고, 열정적이시고, 시작이 곧 끝이신 분이시다. 정말 그분은 예수님과 정말 많이 닮았다. 점도, 흠도 없는...

목사님을 만났던 처음 그 때부터 지금까지 실망도, 낙심도, 후회도 없는 삶을 살았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귀한 직분인 장로의 직분을 받던 날 결심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세상 끝 날까지 주님과 목사님과 함께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다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했다. 이 결심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 나는 언제나 이 결심을 다진다.

다시 시작하시는 30년 속에 나 또한 목사님과 함께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련다.

서울예수중심교회 김상구 장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25년 전 어느 여름날, 사람들로 가득찬 실내체육관은 후덥지근한 무더위에 땀 냄새, 발 냄새, 온갖 체취가 혼합되어 숨을 쉬기조차 괴로운 곳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처형을 앞세우고 우리 부부는 1층에 깔린 더럽고 헤진 카펫에 비집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잠시 후 사프하게 생긴 중년신사가 하얀 양복을 입고 강단에 나오더니 "모두 일어서서 나를 보세요." 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며 손을 앞으로 내밀자 바로 내 앞에 서있던 처형이 나무젓가락 쓰러지듯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한쪽 눈꺼풀이 떠지지 않는 원인모를 병에 걸린 처형을 위해 기도하자고 이곳으로 장모님이 인도하였는데, 나는 운전해주러 왔다가 이렇게 이초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실존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부부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초석 목사님을 아십니까?"라고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이성적인 면보다 감성적인 면이 강하지요."라는 짧막한 대답이 나왔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이초석 목사님 설교테이프를 구해서 들어 보았습니다.

카랑카랑한 금속성 목소리에 실려 있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비유적 표현으로 쉽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성경의 논리를 전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점차 내 골수에 파고들어 나의 과학적 지식과 논리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의 영적 호기심과 신비로운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면, 목사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고, 나의 잘못된 삶의 논리를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살아있는 바로 이 교회야!" 우리는 바로 한국예루살렘교회에 등록하고 매주 설례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설교 때마다 몇 시간의 피땀 어린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은 새롭고 신선하였고, 오아시스의 물과 같이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초석 목사님의 목회가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30년 더 새롭고 신선한 설교 말씀으로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기도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길... 처음처럼.

서울예수중심교회 이관섭 장로

쉬운 길 말고 옳은 길을 가라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 교단의 지난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 핍박, 환란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 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심을 세계만민에게 증거하며 달려오신 총회장 목사님, 저는 그런 총회장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인천교회 담임을 맡고 총회장 목사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은저에게 "장 목사야, 너는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니?" 하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지체 없이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20살 때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고, 철산리 때부터 목사님을 따라왔습니다. 목사님의 겉모습은 변하셨지만 그때나지금이나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은 변함없으신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번은 목사님께서 인천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급식을하면 인

천사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은제가 잊을수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안돼. 왜 그것을 인천사가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베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나는쉬운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는 목사님! 어렵고힘이 들어도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야지." 저와인천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쉬운길을택하지않으시고오직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153구제운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고, 전 세계에 구제의 손길을 보내시며, 특히 옷가지를 남미 땅 어려운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보내고계십니다.

목사님의 가신 30년의 길을 쫓아가며 목사님의 발자국을 보니 너무나 딱바로 가고 계십니다. 그 바른 목사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면서도 저의 발자국을 보니 너무나 곧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30년을 바라보시며 달려가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의 발자국도, 여러분 발자국도 목사님처럼 바로고 변함없는 발자국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인천예수중심교회 장영국 목사



목사님을 따르는 길, 행복했습니다



교단 창립 30주년과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철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예수중심교단이 어언 30세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더니 전국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아!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뎌낸 인고의 세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로 자랐습니다. 이것은 또한 총회장 목사님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 믿음과 전적 순종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30년을 한결 같이 달려오신 목사님! 뒤따르는 종들과 양떼들은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기에 벅찬 가슴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교단에게 30년의 새 역사를 시작하기로 선포하셨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의 믿음대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는 이때에 목사님과 이 교단의 신앙과 사명은 더욱 더 빛을 발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강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장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진하시는 목사님을 뒤따르며 전 세계가 예수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이 교단을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중심교단의 향후 30년을 기대하며, 맡은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예수중심교회 한송이 목사



사람 낚는 어부 153목사가 되겠습니다

기자: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목회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고 어떻게 해서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오삼 목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인천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일 예배 후 기도를 받으러 나갔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을 기도해주시다가 제 차례가 왔는데도 기도를 안 해주시고 잠깐 옆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도해주신 후, “너는 주의 종 길을 가야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약 2년 동안 꿈으로 주의 종 길을 가라고 계속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신학을 했고,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기자: 그럼 청주예수중심교회는 언제 부임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인수하기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들려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고는 건물 주인을 만나 술집에서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하니 방음장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술집주인하고 상의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술집주인하고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 다. 결국 저는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4개월 동안 4번이나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송되고 전화로 이야기해도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 다. 결국 기도하면서 성전 월세를 건물주한테 보내지 않고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와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부터 기도하면서 성전을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들어갈 조건과 환경이 맞는 곳을 찾으면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고, 돈에 맞는 곳을 찾아가보면 조건과 환경

이 맞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찾았던 성전이 유일하게 교단에 하나밖에 없는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인은 교회에는 안준다고 하기에 자존심을 버리고 돈에 맞추어서 해달라며 3개월 동안 15번 찾아가 강성한 결과, 계약을 하고 새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요?

일오삼 목사: 진실한 목회, 정직한 목회, 사랑의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요?

일오삼 목사: 2006년 7월, 속초예수중심교회로 발령을 받고 가서 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차량 운행을 하다가 두 번이나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역을 쉬고 몸을 돌보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너는 그곳에서 죽어야해.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더라도 순종하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나온 것이 제 평생에 후회되고 교훈이 되는 일입니다.

기자: 총회장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일오삼 목사: 목사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한없는 감사뿐입니다. 목사님을 따라온 지 25년이나 되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섬세하게 베풀어주신 목사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물질로 선교 사업을 도울 것입니다.

기자: 청주예수중심교회의 비전과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일오삼 목사: 신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30년, 도전과 모험이 없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선포하신 대로, 이제 새롭게 결단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전화하고 찾아가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목사가 돼서 새로 주신 몸된 교회를 채우고 청주체육관에서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기 원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과 예수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신영서

jesus7857@gmail.com